

벤처기업 창업자의 창업경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자금조달이 초기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종선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박상문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Business Model Innovation and Financing on the Performance of New Ventures

Jongseon Lee^a, Sangmoon Park^b

^aDepartm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Trade, Myongji University, South Korea

^b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 Account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29 February 2024, Revised 20 March 2024, Accepted 24 March 2024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business model innovation and financing on new venture performance.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analyzes survey data on new ventures in Korea and investigated research hypothesis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 Founders' prior startup experience have different impacts on performance depending on whether they had a successful or failed startup. Successful experience has a positive impact on early performance, while failure experience has a negative impact. Business model innovation shows a positive and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early performance. External financing has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the type of funding source and performance variables. VC funding is positively related to employment creation, while government R&D funding is negatively related to sales volume.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on early performance vari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and unsuccessful entrepreneurs. It also empirically confirms that business model innova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early performance. We empiricall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external financing sources of venture firms and early performance. Since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business model innovation, and external financing on early stage performance may be different, entrepreneurs should consider these relationships when pursuing early stage business opportunities.

Keywords: Entrepreneurship, Venture Capital, Performance, Startups

JEL Classifications: L26, G24, L25, M13

* 이 논문은 2022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a First Author, E-mail: jongseon@mju.ac.kr

^b Corresponding Author, E-mail: venture@kangwon.ac.kr

© 2024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기업들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하고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활동을 추구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지속적인 혁신의 중요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만성적인 자금부족이나 최신 지식부족으로 인해 혁신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보유자원 규모와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들은 혁신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나 새로운 변화를 위한 투자와 지식창출에 어려움이 많다.

벤처기업들은 기존과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을 추구한다(Alvarez, Barney, & Anderson, 2013; Shane & Venkataraman, 2001). 국내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창업초기 목표와는 달리,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에 대한 조사들은 창업기업들이 희망적인 기대와는 달리 사업지속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창업한 기업의 1년 후 생존율은 64.1%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에 창업한 기업이 5년 후인 2021년까지 생존한 비율은 34.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창업초기 기업들의 생존율은 낮은 편이다(통계청, 2023). 이에 비해 벤처기업 기업들의 생존율은 일반 창업기업들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벤처기업의 벤처 인증이후 연차별 생존율은 1년차 96.1%에서 5년차에는 78.4%, 10년차에는 62.8%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희선, 2019). 그러나 이는 벤처기업 인증이후 시점부터의 생존율에 대한 조사이므로 창업초기 이미 생존한 기업들과 향후 생존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벤처인증 효과와 벤처기업 인증에 따른 다양한 지원정책의 효과와 같이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은 결과일 수 있다.

벤처기업들이 장기 생존과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업초기부터 유망한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Trimi & Berbegal-Mirabent, 2012). 기존 벤처기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기업의 창업자 특성, 내부역량, 외부자금 조달, 외부 네트워킹과 같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창업과정의 여러 요인들과 성과변수와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Shepherd, Wennberg, Suddaby & Wiklund, 2019). 다양한 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벤처기업의 초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은 가치 창출과 가치 수확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을 위해 린 스타트업(Reis, 2011),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수익모델과 같은 형태의 실무적 방법론들을 활용해 오고 있으나 이들 활동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Blank, 2013; Osterwalder & Pigneur, 2010); Reis, 2011).

본 연구에서는 창업초기 벤처기업들의 새로운 사업기회 추구활동이 초기 생존과 성과에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창업자의 창업경험은 다른 창업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인식하거나 창업초기 사업운영에 대한 경험을 활용하여 창업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초기 운영을 이루어낼 수 있다(Alvarez et al, 2013; Delmar & Shane, 2006). 사업기회는 기존과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기존의 제품혁신이나 서비스 혁신과는 달리 가치 창출, 가치 제안 및 가치 회수를 포괄하는 일련의 새로운 사업운영과 수익창출 방식을 의미한다(Zott & Amit, 2006; 2007).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창업초기 벤처기업들은 자사만의 독특한 가치방식을 개발하고 경쟁력의 원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기회와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자원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외부로부터 적기에 필요로 하는 자금조달을 통해 사업기회를 구체화하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초기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Zott & Amit,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들이 창업초기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혁신으로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자원확보의 상호 연계성을 인식하고 이들 요인들이 창업초기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벤처기업의 창업 초기특성과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주요 연구가설들을 설정하였다. 3장에서는 연구가설 검증과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와 변수측정을 포함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들과 분석 결과들을 제시하였으며 5장에서는 토론과 결론영역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들을 제시하였다.

II.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1. 창업초기 특성과 벤처기업의 경쟁력

벤처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을 통해 기존 기업이나 기존 제품서비스들과는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사업적 성과를 추구한다(Shane & Venkataraman, 2001).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자원과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상당수의 창업기업들은 창업초기 유형자원인 자금이나 인력측면에서 제한된 규모만을 보유하고 있어서 자원제약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일부 창업자나 벤처기업들은 자원제약 상황에서도 급진적인 혁신을 이루거나 기존과 차별화된 방법을 통해 자원제약을 극복하기도 한다(Desa & Basu, 2013; Keupp & Gassmann, 2013). 그러나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나 창업기업들은 초기 자원제약이나 초기 사업기회를 개발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창업초기 벤처기업들은 자원규모나 기술유무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창업자들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통한 수익창출을 추구한다(Alvarez et al., 2013). 창업초기 기업들은 기존의 기업들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기회를 추구하며 이는 창업자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이다. 이는 창업자 또는 창업팀이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업들을 전개하므로, 이들의 경험과 지식 및 사업에 대한 의지와 역량은 창업초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창업자 또는 창업팀의 인적자본에 해당되는 지식, 경험 및 역량은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핵심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다(Klotz, Hmieleski, Bradley, & Busenitz, 2014).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의 꿈과 비전은 대부분 창업자의 의지와 경험 및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동일한 사업기회나 기술적 기회 상황속에서도 창업자의 이전 경험이나 지식특성에 따라 해당 기술을 활용한 사업기회가 다른 사업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Shane, 2000). 창업초기 창업자의 중요성은 기존 창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에서 창업자의 역량이나 특성이 벤처기업의 경쟁력과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창업초기에는 자사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전체 시스템적인 수준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구조적 체계를 의미한다(Zott et al., 2011; Spieth et al., 2014).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가치 창출(value creation),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 가치 회수(value capture)로 구성된다(Johnson et al., 2008; Baden-Fuller & Haefliger, 2013; Zott & Amit, 2013). 가치 창출은 기업이 조직 내부 및 외부조직과의 프로세스상에서 여러 자원과 역량을 사용하여 가치 사슬에 따라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과 수단을 정의한다. 가치 제안에서는 고객을 위한 솔루션 포트폴리오와 제공 방법을 설명하며, 가치 회수에서는 가치제안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기업이 비용을 충당하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보장하는 수익을 달성하는 방법을 의미한다(Foss & Saebi, 2017; Johnson et al., 2008; Teece, 2010; Baden-Fuller & Haefliger, 2013). 창업초기 벤처기업들도 자신들이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치 창출, 가치 제안 및 가치 회수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비즈니스 모델이 기대와 달리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창업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시장이나 신규 고객층으로 목표시장을 변경하거나 신규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과 같은 피벗팅을 시도할 수 있다.

셋째, 창업초기 벤처기업들은 사업기회 추구하고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위한 자원확보가 중요하다(Desa

& Basu, 2013; Keupp & Gassmann, 2013). 벤처기업들은 사업초기 조직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지속적인 자금을 조달받거나 사업운영으로 확보한 이익을 재투자할 필요가 있다.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벤처투자자와 같은 외부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특정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R&D자금을 지원받는 것과 같이 다양한 원천들을 활용할 수 있다(Drover, Busenitz, Matusik, Townsend, Anglin & Dushnitsky, 2017; Islam, Fremeth & Marcus, 2018). 그러나 외부 자금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이들로부터 자금조달을 위한 경쟁은 매우 치열하여 상대적으로 제한된 벤처기업이나 창업초기 기업들만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벤처기업들에서 창업 초기 성과달성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계획이나 사업기회가 실제로 작동하고 수익을 실현함으로써 사업적 성공가능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사업지속을 위한 자원확보와 재투자를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초기 성과창출은 해당 사업의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부 투자자들이나 유망 인적자원과 잠재적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해당 사업기회의 우수성과 미래 전망에 대한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외부 자원들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2. 벤처기업 창업초기 특성과 성과간의 관계

창업자의 경험은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중요한 자산이자 지식의 원천이다(Delmar & Shane, 2006; Dencker & Gruber, 2015). 창업은 새로운 가치를 포착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 기존 조직이나 기업들과 같은 체계화된 지원과 운영방식이 부재하므로,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고 법적 및 행정적 업무 처리를 위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 또한 사업진행을 위한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상품기획, 기술개발, 마케팅, 자금조달, 회계, 생산서비스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기업의 설립에서부터 여러 부서화 및 역할조정기에 이르는 상당한 활동과 업무들에 대한 수행이 창업초기에 창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창업자가 창업초기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 상대적으로 사업기회를 구체화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외부 자원을 확보를 위한 시간과 투자가 어려워져 창업초기 성과달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Reuber & Fisher, 1999; Politis, 2008; Westhead & Wright, 1998).

창업자는 기존 창업경험을 통해 학습한 신규 조직의 설립과 운영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대한 노하우와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제한된 시간과 자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전 창업과정을 통해 형성된 다양한 외부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창업경험은 외부 투자자 자원보유자들에게 해당 벤처기업의 역량과 잠재력에 대한 신호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외부자원 보유자들로부터 필요한 자원확보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Adams, et al, 2016; Zhang, 2011).

기존 연구들에서는 창업자의 창업경험은 벤처기업과 신생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는데, 창업경험이 있는 경우 매출이나 고용의 성과가 높고(Cassar 2014; 김민수 외, 2010; 배영임, 2014; 박상문, 이미순, 2019), 외부 투자유치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o & McKelvie 2018). 이는 창업경험을 보유한 창업자들은 이전의 창업경험을 통해 학습한 지식과 경험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들을 형성함으로써 후속 창업기업에서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창업자의 창업경험과 초기 성과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H1 벤처기업 창업자의 창업경험은 초기 성과와 정의 영향관계를 가질 것이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경쟁 우위의 근간이며 기업의 가치를 창출한다(Zott et al., 2011). 기업들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치 제안 및 가치 회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제품혁신, 공정혁신 및 경영혁신과는 달리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새롭게 만들거나 혁신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으로(Baden-Fuller & Haefliger 2013), 기존의 산업 구조, 고객, 경쟁 규칙, 가치 사슬을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동태적인 시장환경에서 기업들이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Guo et al., 2017; Kim & Min, 2015).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효율성 중심 비즈니스 모델(efficiency-centered business model)은 거래 비용을 줄이고 가치 창출을 위한 내용, 구조, 거버넌스 요소에 변화를 주거나 표준화를 통해 참여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재설계하고 최적화하여 거래 불확실성, 정보 비대칭성 및 거래 복잡성을 줄이는 방식을 기본으로 활용한다. 이에 비해 참신성 중심 비즈니스 모델(novelty-centered business model)에서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들을 재조합하거나 재창조하여 이전에 연결되지 않았던 참여자들을 연결하거나, 거래 참여자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고, 새로운 거래 방식을 설계함으로써 기존과는 다른 사업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가치 창출과 가치 획득을 추구한다. 선행연구들은 두가지 비즈니스 모델 유형이 각각 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Balboni, Bortoluzzi, Pugliese, & Tracogna, 2019; Zott & Amit, 2007; 2008).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기업의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의 결과에서도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다(Zhang et al, 2021).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대한 선행요인과 성과와의 다양한 외부요인(시장 기회, 환경특성, 가치 네트워크)과 내부요인(경영자 인식, 자원과 역량, 조직특성)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유형에 관계없이 기업의 성과와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가 존재함을 분석하였다(Zhang et al, 2021).

국내에서도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대한 관심과 이에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국내의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사례분석(정진선, 이희상, 2021; 이동현, 2022; 신중경, 김아랑, 하규수, 2013),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및 개발(박재환, 김대엽 2014; 서수석 2008),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활용한 액셀러레이터 투자프레임워크(정문수, 김은희, 2022)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에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고 경쟁우위를 창출하면서 성과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용민·오인하(2018)은 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과 조직문화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참신성 중심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 성과와 정의 영향관계를 보이나, 효율성 중심 비즈니스 모델은 성과와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비즈니스 모델은 조직문화와 유의한 영향관계를 가지며 성과와의 관계에서도 매개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현중(2022)은 국내 벤처기업들의 제품개발 프로젝트의 성과에 비즈니스 모델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비즈니스 모델은 제품개발 혁신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은 연구개발 투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제품개발 시간을 단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은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기존 제품 및 서비스 시장과는 차별화된 가치창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자사만의 경쟁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벤처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H2 벤처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성은 초기 성과와 정의 영향관계를 가질 것이다.

벤처기업들의 자원부족으로 인해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겪거나 우수 인력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창업초기에 창업자와 창업팀은 사업진행 과정에 따라 필요한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여러 자원들 중에서 재무적 자원의 확보가 중요하다(Colombo, 2021). 창업초기에는 초기 자본금이나 지인들을 포함한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일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나, 기술적 완성도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이후 시제품개발과 양산 및 시장출시를 포함한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는 사업의 진행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자금들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Ko & McKelvie, 2018).

벤처기업들은 다양한 외부 자금원천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여러 자금원천들은 투자목적이나 투자조건과 기대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자금원천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Klotz et al., 2014).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들은 벤처캐피탈과 같은 전문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이들 벤처캐피탈들은 벤처기업의 지분확보 조건으로 자금을 투자하며 향후 해당 벤처기업이 M&A 또는 주식시장에 상장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회수함으로써 재무적 투자수익을 확보하는데 관심이 있다. 투자한 기업들의 성공여부가 본인들이 투자한 자금의 회수가능성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기업들에 대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자문과 컨설팅 등을 통해 해당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연구들로 나타나고 있어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의 성과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벤처기업들의 경우에는 특정 산업 및 전문 기술분야에서 특정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R&D자금들을 활용할 수 있다(Islam et al., 2018; 이병헌, 박상문, 2020). 정부 R&D자금들은 특정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정부가 개발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특정 기술의 성공적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지분에 대한 희석없이 특정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들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실패시에도 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전액 회수 부담이 없는 특성을 가진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정부 R&D자금의 활용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벤처기업들은 창업초기 기술개발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상당한 규모의 자금투자를 필요로 하므로 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유치나 특정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R&D자금의 활용은 각각의 자금조달 목적과 관리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들의 사업기회를 구체화하여 성과를 달성하는데 중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벤처기업의 외부자금조달과 초기 성과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H3 벤처기업의 외부 자금조달은 초기 성과와 정의 영향관계를 가질 것이다.

III. 연구방법론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는 매년 국내 벤처기업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경영 활동에 대한 조사이며 국내 벤처기업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한 대표적인 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들의 창업초기 특성이 초기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창업이후 업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초기 벤처기업들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업력기준 10년 이하이고 창업의 형태가 기존기업의 분사나 계열사 형식이 아닌 창업자의 독립적인 창업으로 설립된 기업들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들에 대한 응답이 미흡한 조사대상을 제외하고 총 869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변수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벤처기업의 매출액 규모와 종업원 규모로 측정하였다. 매출액 규모는 2019년

기준 매출액 규모의 값을 자연로그로 변환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종업원 규모는 2019년 기준 총 종업원 수로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창업자의 창업경험, 비즈니스 모델 혁신성 및 외부 자금조달 여부로 측정하였다. 창업자의 창업경험은 벤처기업의 창업자가 현재의 벤처기업의 창업이전에 다른 기업에 대한 창업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이전 창업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1의 값을 부여하고, 창업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이전 창업경험은 성공 또는 실패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창업자의 관점에서 성공적인 창업경험 여부와 실패한 창업경험여부로 각각 측정하였다. 성공 또는 실패 창업경험 여부는 각각의 경험여부인 있는 경우에는 1의 값을, 해당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성은 벤처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명확성과 혁신성의 정도로 측정하였다. 변수는 비즈니스 모델의 명확성과 혁신성의 수준을 각각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두 개 측정항목의 평균값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외부 자금조달 변수는 외부 투자유치 여부와 정부 R&D자금 수혜여부로 측정하였다. 외부 투자유치 여부는 해당 벤처기업이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또는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유치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의 값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정부 R&D자금 수혜여부는 정부 R&D지원사업에 참여하여 R&D자금을 수혜한 경우에는 1의 값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초기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벤처기업의 업력은 창업이후 업력 기간에 따라 3년 이하와 4~10년 이하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업력변수는 더미변수로 구분하였다.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는 창업기,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 및 성숙기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기업들의 성장단계는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업종은 벤처기업들이 영위하는 주력 사업을 기준으로 에너지화학정밀, 의료계약, 컴퓨터반도체부품, 통신방송기기, 기계자동차금속, 음식료섬유비금속, SW/IT서비스, 정보통신방송서비스,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 및 기타 업종으로 구분하고 각 업종변수는 더미 변수로 측정하였다.

지리적 위치는 벤처기업의 본사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수도권 여부를 측정하였으며 수도권 내부에 위치한 경우에는 1의 값을 그 외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변수들을 추가적으로 통제하였다. 창업자의 성별에 따라 남성인 경우에는 1의 값을 그 외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창업자의 전공분야에서는 이공계 여부로 측정하였으며 공학(엔지니어) 또는 자연과학 전공자의 경우에는 1의 값을 그 외에서는 0으로 측정하였다. 창업자의 창업당시 연령대는 5점 척도(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창업자 학력수준은 5점 척도(고졸이하, 전문학사, 대졸, 석사, 박사)로 측정하였다. 창업자 창업이전 산업계 경력 년수를 측정하였다. 창업자 대표이사 동일 여부는 창업자와 현재 대표이사 동일인 경우에는 1의 값을 그 외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또한 기업의 기술력 수준으로는 각 기업들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을 세계수준 대비 기술수준과 국내 경쟁사 대비 기술수준으로 측정하고 평균값을 기술력 수준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기초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은 <Table 1>과 같다. 분석대상 벤처기업들은 2019년 기준 평균 매출액 규모는 27.02억원이며 종업원 수는 30.59명으로 나타났다. 업력 분포에서는 3년 이하가 전체 14.04%이고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이 전체의 60.18%를 차지하고 있다. 창업자가 이전 창업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전체 17.38%이며, 성공 창업경험은 14.61%, 실패 창업경험은 4.26%로 나타났다. 외부 자금조달의 경우에서는 외부 투자유치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6.56%인 반면 정부 R&D자금 수혜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16.11%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1	2	3	4	5	6	7	8	9
1 매출액규모	1.00								
2 총종업원수	.51***	1.00							
3 업력_3년이하	-.24***	-.07**	1.00						
4 수도권여부	.09***	.07**	.00	1.00					
5 창업자 남성여부	.07**	.07**	-.06**	.03	1.00				
6 창업자 이공계여부	-.06**	.03	-.05*	-.11***	.19***	1.00			
7 창업자대표동일여부	-.22**	-.15***	.07**	-.01	-.02	-.01	1.00		
8 창업자 산업경력	.06**	.05*	-.02	-.03	.10***	.11***	-.01	1.00	
9 창업자 학력	-.17***	-.02	.00	-.04	.04	.10***	.11***	.05*	1.00
10 창업자 연령	.10***	.13***	.01	-.05*	.07**	.03	-.20***	.51***	.10***
11 기술력수준	.09***	.13***	.03	-.15***	-.02	.08***	-.01	.05*	.06**
12 BM혁신성	.15***	.19***	-.04	-.13***	.05*	.03	-.02	.08***	.13**
13 자금_외부투자유치	-.02	.09***	-.03	.04	.05*	.00	.01	-.01	.15***
14 자금_정부R&D자금	-.15***	.00	.07**	-.11***	.00	.10***	.06**	-.03	.20***
15 창업자창업경험여부	.04	.05*	-.02	-.05*	-.05*	-.05*	-.08***	.07**	-.02
16 창업경험_성공여부	.09***	.08***	-.01	-.06**	-.07**	-.06**	-.06**	.07**	-.03
17 창업경험_실패여부	-.10***	-.03	.00	.02	.05*	.01	-.07***	.03	.00
평균	7.90	30.59	.14	.60	.94	.71	.91	11.32	3.34
표준편차	1.79	51.74	.35	.49	.24	.45	.29	6.99	.75
	10	11	12	13	14	15	16	17	
10 창업자 연령	1.00								
11 기술력수준	.08***	1.00							
12 BM혁신성	.13***	.59***	1.00						
13 자금_외부투자유치	.03	.05*	.10***	1.00					
14 자금_정부R&D자금	.05*	.19***	.17***	.10***	1.00				
15 창업자창업경험여부	.09***	.07**	.14***	-.01	.06**	1.00			
16 창업경험_성공여부	.09***	.07**	.10***	-.03	.02	.90***	1.00		
17 창업경험_실패여부	.00	-.01	.08***	.04	.09***	.46***	.12***	1.00	
평균	2.93	3.08	3.26	.07	.16	.17	.15	.04	
표준편차	.81	.94	.68	.25	.37	.38	.35	.20	

*** p < .01, ** p < .05, * p < .1

Table 2.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종속(매출액규모)		종속(매출액규모)		종속(종업원수)		종속(종업원수)		
	β	s.e.	β	s.e.	β	s.e.	β	s.e.	
통제 변수	상수	9.07***	.55	9.00***	.54	-36.06**	17.44	-37.17**	17.41
	업력_3년이하	-.57***	.17	-.58***	.17	-3.60	5.37	-3.73	5.35
	성장단계_창업기	-1.29***	.33	-1.24***	.33	-6.32	10.50	-5.59	10.49
	성장단계_초기성장	-1.46***	.17	-1.40***	.17	-24.59***	5.34	-23.73***	5.34
	성장단계_고도성장	-.36**	.15	-.32**	.15	-10.94**	4.77	-10.39**	4.77

	수도권여부	.43***	.12	.44***	.12	6.05	3.73	6.23*	3.72
	기술력수준	.14	.09	.13	.09	7.26***	2.74	7.14***	2.74
	창업자 남성여부	.32	.23	.38*	.22	6.37**	7.17	7.32	7.17
	창업자 이공계여부	-.17***	.12	-.16	.12	3.86	3.92	4.01	3.91
	창업자대표동일여부	-.89***	.19	-.92***	.19	-18.74***	5.96	-19.15***	5.96
	창업자 산업경력	.00	.01	.00	.01	-.32	.29	-.30	.29
	창업자 학력	-.34***	.08	-.35***	.07	-4.62*	2.40	-4.64*	2.39
	창업자 연령	.07	.08	.04	.08	7.27***	2.56	6.91***	2.56
H1	창업경험여부	.01	.14			2.15	4.53		
	창업경험_성공여부			.38**	.15			8.33*	4.89
	창업경험_실패여부			-.99***	.27			-12.46	8.48
H2	비즈니스 모델 혁신	.25**	.11	.26**	.11	12.32***	3.45	12.41***	3.45
H3	외부투자유치여부	.00	.22	.04	.22	13.43*	6.98	14.01**	6.97
H3	정부R&D수혜여부	-.51***	.15	-.47***	.15	.43	4.87	.97	4.87
	R제곱값	.28		.30		.13		.18	
	수정 R제곱값	.26		.28		.11		.11	
	F 값	13.36***		13.62***		5.18***		5.16***	
	표본수	869		869		869		869	

업종변수는 더미변수로 분석에는 포함하였으나, 세부 분석결과는 생략함
 *** p < .01, ** p < .05, * p < .1

IV.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모형1과 모형2는 매출액 규모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모형3과 모형4는 종업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벤처기업 창업자의 창업경험과 벤처기업의 초기 성과간의 관계는 창업경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 창업경험 여부가 매출액(모형1)과 고용(모형3)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창업경험을 성공과 실패경험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창업경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성과와의 영향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창업 성공경험은 매출액과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beta=.38, p < .05$ 모형2), 고용과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beta=8.33, p < .1$ 모형4)를 보이는 반면, 실패 창업경험은 매출액과 부의 유의한 영향관계($\beta=-.99, p < .01$ 모형2)을 보이나 고용과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전 실패한 창업경험이 초기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거나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은 과거 창업실패로 인해 학습한 지식이나 경험이 이후 창업상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창업자들은 사업실패의 원인을 기업 내부적 요인보다는 기업 외부적 요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크므로(Jones & Harris, 1967) 이전의 사업아이템이나 사업방식을 반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 또한 이전 실패경험이 있는 창업자들은 기존 사업분야가 아닌 새로운 산업이나 제품시장 영역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도 이전 창업경험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Eggers & Song, 2015). 이상의 결과는 창업자의 창업경험과 초기 성과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가설 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성과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성은 매출액 규모와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beta=.25, p<.05$ 모형1)를 보이고 고용 규모와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beta=.12.32, p<.05$ 모형3)를 보이고 있다. 창업경험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모형에서도 비즈니스 모델 혁신성은 매출액과 고용성과의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벤처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성과 초기 성과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가설 2를 지지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외부자금조달과 초기 성과간의 관계는 외부자금원천과 성과변수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외부 투자유치여부의 경우에는 종업원 수와는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beta=13.43, p<.1$ 모형3)를 보이고 있으나 매출액 규모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R&D자금 수혜 여부는 매출액 규모와 부의 유의한 영향관계($\beta=-.51, p<.01$ 모형1)를 보이고 종업원 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벤처캐피탈과 같은 외부 투자자들은 향후 투자대비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대하므로 벤처기업들의 단기적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성과에 관심이 많을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들은 외부 투자자금을 유치한 경우에는 새로운 우수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재무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외부 투자유치는 해당 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호효과로 작용하여 우수 인력들을 고용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 R&D자금의 경우에는 정부 R&D지원사업들이 목표로 하는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고 지원하는 것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벤처기업들의 기술개발 가능성에 초점을 둘 수 있다. 이는 기술개발의 결과가 사업화 되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정부 R&D사업을 수행하는 벤처기업들도 현재 시장규모가 큰 제품시장에서의 기술개발보다는 미래 유망 제품시장에서의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정부 R&D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벤처기업의 외부자금조달과 초기 성과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가설 3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통제변수와 벤처기업의 초기 성과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력이 상대적으로 짧거나 성장단계가 초기 단계인 경우에는 초기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지리적 위치에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매출액과 고용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시장규모나 자원 규모가 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의 기술력 수준이 높을수록 고용성과와 정의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술력이 높을수록 성장잠재력이 높아 우수 인력들을 채용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벤처기업의 창업자 특성에 따라 다양한 영향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창업자와 현재 최고경영자가 동일한 경우 매출액과 고용 모두에서 부의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창업자의 학력수준에 있어서도 매출액과 고용 모두에서 부의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다. 창업자와 최고경영자의 동일인 여부나 창업자의 학력수준과 성과변수와의 영향관계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V. 토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벤처기업들에서 창업경험 특성,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외부 자금조달과 초기성과간의 영향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자의 이전 창업경험은 창업경험 여부보다는 성공경험 또는 실패경험에 따라 성과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경험은 초기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실패경험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초기 성과와 정의 영향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벤처기업에 있어서 차별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가치창출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있다. 외부 자금조달에서는 자금원천유형과 성과변수에 따라 상이한 영향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투자유치는 고용창출과 정의 영향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부 R&D자금은 단기적 매출액 규모와 부의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창업자의 성공과 실패의 창업경험 특성에 따라 초기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창업경험 관련 기존 연구들이 창업경험 여부나 창업경험 횟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성공경험과 실패경험이 각각 성과변수와 상이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는데 이론적 기여점이 존재한다. 실무적으로는 창업자의 이전 창업경험에 대한 평가시 성공경험과 실패경험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실패 경험이 있는 창업자의 경우에는 실패경험으로부터 학습효과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둘째,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초기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데 본 연구의 기여도가 존재한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체들이 기존 기업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출발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 초기성과 달성에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이론적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실무적으로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의 경우 기존 기업들과 명확하게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벤처기업의 다양한 외부 자금조달과 초기 성과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외부 투자 유치나 정부 R&D자금 활용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수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여러 외부 자금원천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유치와 정부 R&D자금의 영향관계를 동시에 살펴보았으며, 성과변수에 따라 상이한 영향관계가 존재함을 분석하였다. 벤처기업들은 자사의 경영목표나 목표성과에 따라 여러 외부 자금원천의 상이한 영향관계를 고려하여 필요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많은 연구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창업경험에 대한 정교한 측정이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 창업경험 여부, 성공경험 여부, 실패경험 여부와 같이 경험여부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 이전 창업경험의 횟수나 빈도 및 경험의 세부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공 또는 실패경험에 있어서도 성공과 실패의 규모나, 경험 시점에 따라 성공과 실패의 경험효과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이전 창업경험 이후 현재 창업시점까지의 시간 간격이나 창업한 업종이나 제품시장의 동일여부와 같이 보다 다양한 창업경험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며 이를 변수들이 벤처기업들의 경영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특정 시점의 정량적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다양한 성과변수의 활용이 미흡하였다. 바이오 업종과 같이 업종에 따라 단기적 매출액 규모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술개발이나 원천기술 확보에 초점을 두는 벤처기업들도 존재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성과변수를 활용하여 창업초기 특성과 성과변수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외부 자금조달에 대한 변수측정에서의 정교성이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 투자유치나 정부 R&D자금수혜와 같이 더미변수로 측정하고 있으나 각 외부자금의 규모나 조달시기가 벤처기업의 사업화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외부 자금조달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 투자유치나 반복적 정부R&D자금 수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과 성과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초기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시장과 산업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2차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표본을 활용하고 있어 조사목적에 따른 임의구분된 업종변수를 더미변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표준산업분류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산업특성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표준산업분류 체계와 같이 보다 표준화된 산업구분이나 구체적인 제품시장의 특성과 같이 세분화된 산업특성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는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존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 자료조사를 기반으로 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벤처기업들의 성장과정에 따라 여러 독립인자와 종속변수간의 관계의 동태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환경변화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방식이나 고객들의 수요 특성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급격한 환경변화 시기를 전후로 하여 벤처기업들의 창업초기 특성과 성과간의 영향관계가 다른 형태로 변화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김민수, 황보윤, 김홍 (2010), “창업보육기업의 창업자 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5(2), 33-57.
- 김용민, 오인하 (2018), “비즈니스 모델과 조직문화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혁신학회지*, 13(1), 137-168.
- 김희선 (2019), 벤처출신기업의 성과분석, 정책연구19-19, 중소기업연구원.
- 박상문, 이미순(2019), “창업경험 특성이 벤처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업력의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4(4), 51-62.
- 박재환, 김대엽 (2014),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방안 연구”, *경영교육연구*, 29(2), 225-238.
- 배영임 (2014), “재창업 기업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9(3), 13-22.
- 서수석 (2008),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가 비즈니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전자상거래학회지*, 9(1), 27-47.
- 신중경, 김아랑, 하규수 (2013), “기업의 지속적인 가치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 전략에 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4), 153-164.
- 윤현중 (2022), “벤처기업의 제품개발 프로젝트와 제품개발 성과: 비즈니스 모델의 역할 탐색”, *벤처창업연구*, 17(5), 265-278.
- 이병현, 박상문(2020), “정부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 *아태비즈니스연구*, 11(4), 177~188.
- 이동현 (2022),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한 후발기업 전략에 관한 연구: 아이팟과 스포티파이 사례를 중심으로”, *e-비즈니스연구*, 23(1), 21-37.
- 정문수, 김은희 (2022), “비즈니스 모델 혁신 프레임워크 기반의 액셀러레이터 투자결정요인 연구”, *벤처창업연구*, 17(2), 65-80.
- 정진선, 이희상 (2021), “고객-자원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연구: Amazon.com 사례”, *기술혁신학회지*, 24(6), 1053-1081.
- 통계청(2023),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통계청
- Adams, P., R. Fontana and F. Malerba (2016), “User-industry spinouts: Downstream industry knowledge as a source of new firm entry and survival”, *Organization Science*, 27(1), 18-35.
- Alvarez, S. A., J. B. Barney and P. Anderson (2013), “Forming and exploiting opportunities: The implications of discovery and creation processes for entrepreneurial and organizational research”, *Organization Science*, 24(1), 301-317.
- Baden-Fuller, C., and S. Haefliger (2013), “Business model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Long Range Planning*, 46(6), 419-426.
- Balboni, B., G. Bortoluzzi, R. Pugliese and A. Tracogna (2019), “Business model evolution, contextual ambidexterity and the growth performance of high-tech start-up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99, 115-124.
- Blank, S. (2013), “Why the Lean Start-Up Changes Everything”, *Harvard Business Review*, 91(5), 63-72.
- Cassar, G. (2007), “Money, money, money?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entrepreneur career reasons, growth preferences and achieved growth”,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19(1), 89-107.
- Colombo, O. (2021), “The use of signals in new-venture financing: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Management*, 47(1), 237-259.
- Delmar, F. and S. Shane (2006), “Does experience matter? The effect of founding team experience on the survival and sales of newly founded ventures”, *Strategic Organization*, 4(3), 215-247.
- Dencker, J. C. and M. Gruber (2015), “The effects of opportunities and founder experience on new firm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6(7), 1035-1052.

- Desa, G., and S. Basu (2013), "Optimization or bricolage? Overcoming resource constraints in global social entrepreneurship",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7(1), 26-49.
- Drover, W., I. Busenitz, S. Matusik, D. Townsend, A. Anglin and G. Dushnitsky (2017), "A review and road map of entrepreneurial equity financing research: Venture capital, corporate venture capital, angel investment, crowdfunding, and accelerators", *Journal of Management*, 43(6), 1820-1853.
- Eggers, J. P. and L. Song (2015), "Dealing with failure: Serial entrepreneurs and the costs of changing industries between ventur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8(6), 1785-1803.
- Foss, N. J. and T. Saebi (2017), "Fifteen years of research on business model innovation: How far have we come, and where should we go?", *Journal of Management*, 43(1), 200-227.
- Guo, H., J. Tang, Z. Su and J. A. Katz (2017), "Opportunity recognition and SME performance: The mediating effect of business model innovation", *R&D Management*, 47(3), 431-442.
- Islam, M., A. Fremeth and A. Marcus (2018), "Signaling by early stage startups: US government research grants and venture capital funding",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3(1), 35-51.
- Johnson, M. W., C. M. Christensen and H. Kagermann (2008), "Reinventing your business model", *Harvard Business Review*, 86(12), 50-59.
- Jones, E. E. and V. A. Harris (1967), "The attribution of attitud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1), 1-24.
- Keupp, M. M., & Gassmann, O. (2013). Resource constraints as triggers of radical innovation: Longitudinal evidence from the manufacturing sector. *Research Policy*, 42(8), 1457-1468.
- Kim, S. K. and S. Min (2015), "Business model innovation performance: When does adding a new business model benefit an incumbent?",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9(1), 34-57.
- Klotz, A. C., K. M. Hmieleski, B. H. Bradley, B. H. and I. W. Busenitz (2014), "New venture teams: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oadmap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40(1), 226-255.
- Ko, E. J. and A. McKelvie (2018), "Signaling for more money: The roles of founders' human capital and investor prominence in resource acquisition across different stages of firm developm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3(4), 438-454.
- Osterwalder, A. and Y. Pigneur (2010), *Business model generation: a handbook for visionaries, game changers, and challengers*, John Wiley & Sons.
- Politis, D. (2008), "Does prior start-up experience matter for entrepreneurs' learning? A comparison between novice and habitual entrepreneur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5(3), 472-489.
- Reis, E. (2011). *The lean startup*. New York: Crown Business.
- Reuber, A. R. and E. Fischer (1999), "Understanding the consequences of founders' experience",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7(2), 30-45.
- Shane, S. (2000), "Prior knowledge and the discovery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Organization Science*, 11(4), 448-469.
- Shane, S. and S. Venkataraman (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17-226.
- Shepherd, D. A., K. Wennberg, R. Suddaby and J. Wiklund (2019), "What are we explaining? A review and agenda on initiating, engaging, performing, and contextualizing entrepreneurship", *Journal of Management*, 45(1), 159-196.
- Trimi, S. and J. Berbegal-Mirabent (2012), "Business model innovation in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8, 449-465.
- Westhead, P. and M. Wright (1998), "Novice, portfolio, and serial founders: are they differ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3), 173-204.

- Zhang, H., H. Xiao, Y. Wang, M. A. Shareef, M. S. Akram and M A. S. Goraya (2021), "An integration of antecedents and outcomes of business model innovation: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31, 803-814.
- Zhang, J. (2011), "The advantage of experienced start-up founders in venture capital acquisition: evidence from serial entrepreneurs," *Small Business Economics*, 36(2), 187-208.
- Zott, C., and R. Amit (2007), "Business model design and the performance of entrepreneurial firms", *Organization science*, 18(2), 181-199.
- Zott, C., R. Amit and L. Massa (2011), "The business model: recent developments and future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37(4), 1019-1042.